

2020년 9월 1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애플과 니콜라 급락 여파로 지수 변동성 확대 미 상원의 추가 부양책 표결 실패로 소비절벽 현실화 우려 확산

미 증시 특징: 재 확산된 변동성

미 증시는 전일에 이어 기술주 중심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ECB 가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긍정적.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 불안으로 재차 매물이 출회 되었고, 미 상원이 추가 부양책 표결에 실패하자 하락 전환. 한편, 애플(-3.32%)과 니콜라(-11.33%) 등 일부 종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낙폭 확대 마감 (다우 -1.45%, 나스닥 -1.99%, S&P500 -1.76%, 러셀 2000 -1.23%)

미 증시는 ①ECB 통화정책 회의 ②브렉시트 우려 확산 ③추가 부양책 실패 ④개별 기업 이슈로 변화. ECB 는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을 -8.7%에서 -8.0%로 상향 조정. 라가르드 ECB 총재도 “최근 경제지표가 강한 반등을 시사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완화적인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라며 신중한 낙관론을 주장. 한편, 최근 논란이 있던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EU 가 영국에게 브렉시트 협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발표한 점은 부담. 최근 존슨 총리가 ‘국내 시장법’을 통과 시키려고 했는데 전환기간 이후에도 통관의 자유를 보여 브렉시트 합의를 위반. 이에 EU 는 브렉시트 협정을 폐기 시키려고 한다고 경고 했고 존슨은 노딜 브렉시트를 주장. 이 소식으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변화가 확산

한편, 미 상원은 주당 300 달러 추가 실업급여 지원 등이 담긴 부양책에 대해 절차적 단계 통과를 위한 60 표에 이르지 못한 52 대 47 로 부결. 시장은 민주당 반대로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으나, 실제 부결이 되자 매물 출회 되며 낙폭 더욱 확대. 이번 표결로 추가 부양책이 대선 전까지 지연 될 수 있어 소비 절벽 우려를 높였기 때문. 이런 가운데 니콜라(-11.33%)는 헨덴부르크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자 급락. 헨덴부르크는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와 제휴를 맺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 이 여파로 니콜라와 GM(-5.57%)이 급락. 여기에 애플(-3.32%) 등 대형 기술주는 여전히 변동성을 키우며 낙폭을 확대된 점도 지수 부진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396.48	+0.87	홍콩항셍		24,313.54	-0.64
KOSDAQ		884.30	+1.71	영국		6,003.32	-0.16
DOW		27,534.58	-1.45	독일		13,208.89	-0.21
NASDAQ		10,919.59	-1.99	프랑스		5,023.93	-0.38
S&P 500		3,339.19	-1.76	스페인		6,999.20	-0.31
상하이종합		3,234.82	-0.61	그리스		637.95	+0.98
일본		23,235.47	+0.88	이탈리아		19,820.22	+0.2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에너지 업종 부진

니콜라(-11.33%)는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시기의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GM(-5.57%)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하자 급락했다. GM도 동반 하락했다. 장중 테슬라(+1.38%)는 이에 힘입어 9% 가까이 상승 하기도 했으나 장미빛 미래만 보기 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기본적인 회사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평가 속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더불어 애플(-3.32%), MS(-2.80%), 아마존(-2.86%), 알파벳(-1.37%), 페이스북(-2.10%) 등 대형 기술주는 물론 NVIDIA(-3.17%), 넷플릭스(-3.90%) 등의 변동성 확대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한다.

세일 오일생산 업체인 EOG리소스(-9.22%)는 CEO가 오일 생산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급락했다. 코노코필립스(-4.47%), 옥시덴탈(-7.95%) 등 여타 세일 오일 기업들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베드베스앤 비온드(+4.90%) 전자상거래 부문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전환을 토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 된다는 보고서에 기반해 상승했다. 온라인 쇼핑 관련 ETF인 IBUY(-0.95%)는 장 초반 관련 쇼핑 기업들의 강세에 기반해 3%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기술주 매물 출회 및 상원 추가 부양책 표결 실패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65%	대형 가치주 ETF(IVE)	-1.51%
에너지섹터 ETF(OIH)	-4.60%	중형 가치주 ETF(IWS)	-1.32%
소매업체 ETF(XRT)	-1.19%	소형 가치주 ETF(IWN)	-1.53%
금융섹터 ETF(XLF)	-1.41%	대형 성장주 ETF(VUG)	-1.89%
기술섹터 ETF(XLK)	-2.26%	중형 성장주 ETF(IWP)	-1.2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37%	소형 성장주 ETF(IWO)	-1.12%
인터넷업체 ETF(FDN)	-2.05%	배당주 ETF(DVY)	-1.31%
리츠업체 ETF(XLRE)	-1.44%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1%
주택건설업체 ETF(XHB)	-0.8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18%
바이오섹터 ETF(IBB)	-1.69%	미국 국채 ETF(IEF)	+0.12%
헬스케어 ETF(XLV)	-1.53%	하이일드 ETF(JNK)	-0.37%
곡물 ETF(DBA)	+0.65%	물가연동채 ETF(TIP)	+0.07%
반도체 ETF(SMH)	-1.26%	Long/short ETF(BTAL)	-1.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42.96	-3.67%	-7.60%	-16.24%
소재	402.88	-0.94%	-3.12%	+2.35%
산업재	644.91	-1.27%	-4.22%	-1.68%
경기소비재	1,200.68	-1.77%	-6.44%	+1.11%
필수소비재	658.03	-1.25%	-3.94%	-0.03%
헬스케어	1,211.40	-1.55%	-4.88%	-2.93%
금융	406.25	-1.41%	-3.89%	-3.02%
IT	1,998.97	-2.28%	-10.48%	-0.18%
커뮤니케이션	198.34	-1.57%	-8.10%	+1.01%
유틸리티	296.41	-1.77%	-2.92%	-4.26%
부동산	220.99	-1.47%	-3.60%	-1.6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래 보다는 현재 기업가치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1%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58%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0.2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하락했다. 전일 안정을 찾음으로 해서 기대를 높였으나 예견된 미 의회의 추가 부양책 표결 실패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 종목군 위주로 매물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미뤄지면 연말 쇼핑시즌 매출 부진 등으로 대미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니콜라(-11.33%)가 회계부정, 경영진 조사 등을 위주로 자료를 내는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급락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상승폭을 키웠던 기술주들의 투자심리를 위축 시켰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 시장이 급등 했으나, 많은 종목들이 실제적인 회사 가치를 뒤로하고 꿈을 기반으로 상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형 기술주 변동성 확대와 힌덴부르크 리서치의 보고서 등으로 이제는 기업가치에 더욱 주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 가능성은 한국 증시에서도 미래 가치 보다는 현재 기업 가치에 주목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 상회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88.4 만건)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예상(82.8 만건)을 상회했다. 4주 평균 수치는 99만 2,500 건에서 97만 750 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8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대비로는 0.2% 하락했다.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예상(mom +0.2%)을 상회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0.6% 상승해 예상(yoy +0.3%)을 상회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예기치 않게 크게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연준이 선호하는 PCE 디플레이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월 도매재고는 전월 대비 0.3% 감소해 예상(mom -0.1%)을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재고 부담으로 하락

국제유가는 EIA 가 지난 주 원유 재고가 130 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203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더불어 중국 정유사들이 재고 한계치에 도달해 원유 수입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더 나아가 원유 선물 트레이더들이 유조선에 계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향후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현물 매입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부담이었다.

달러화는 파운드화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CB 가 올해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장 후반 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그 폭이 축소 되었다. 파운드화는 아일랜드 국경을 둘러싼 마찰 확대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달러 대비 1.7% 내외 약세를 보였다. 여타 신흥국 환율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자 하락했다. 국채 금리는 장 초반 ECB 의 경제 전망 상향 조정과 주식시장 강세에 기대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상원의 추가 부양책 표결 실패에 따른 향후 소비절벽 우려 부각과 미 증시가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자 결국 하락 전환했다.

금은 고용 부진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부각 등으로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0% 철근은 0.2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7.30	-1.97	-10.14	Dollar Index	93.403	+0.16	+0.72
브렌트유	40.06	-1.79	-9.10	EUR/USD	1.1814	+0.09	-0.32
금	1,964.30	+0.48	+1.01	USD/JPY	106.12	-0.06	-0.07
은	27.291	+0.77	-0.38	GBP/USD	1.2802	-1.54	-3.61
알루미늄	1,789.00	+0.28	+0.51	USD/CHF	0.9107	-0.19	+0.14
전기동	6,668.50	-0.97	+1.60	AUD/USD	0.7256	-0.37	-0.23
아연	2,416.50	-0.27	-3.88	USD/CAD	1.3191	+0.34	+0.48
옥수수	365.00	+1.32	+1.74	USD/BRL	5.3313	+0.44	-0.21
밀	548.25	+0.83	-1.79	USD/CNH	6.8444	+0.19	-0.04
대두	977.50	-0.13	+1.61	USD/KRW	1184.90	-0.35	-0.29
커피	131.70	+2.21	+0.30	USD/KRW NDF 1M	1188.20	+0.27	-0.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80	-1.97	+4.57	스페인	0.346	+1.00	+2.30
한국	1.522	+0.50	-0.80	포르투갈	0.366	+0.70	+2.60
일본	0.028	-0.30	-1.20	그리스	1.124	-2.30	+0.90
독일	-0.433	+2.90	+5.50	이탈리아	1.007	-1.30	+3.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